

중국의 단섬유 원단 - 상쾌한 얇은 원단이 인기

중국의 단섬유 원단 시장에서는 상쾌감이 있는 얇은 천이 가장 잘 팔린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어패럴에 의한 어린이용 천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여름 옷감용 천의 거래도 늘어, 시장은 판매 시즌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초여름이 되면 선염, 레이온, 프린트, 혼방, 정전기 방지 원단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선염 원단** : 최근의 주된 흐름은 스트라이프나 체크로서, 특히 체크는 다채로운 상품을 갖추고 소비자의 인기를 얻고 있다. 무늬는 굵은 것, 가는 것, 단색, 복합색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같은 색 또는 이색의 그라데이션(gradation ; 색의 濃淡法) 제품 등으로 되어 있다. 단색 체크는 블루를 바탕으로 한 청량감이 있는 원단이 잘 나간다. 셔츠, T-셔츠 용도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한 체크 무늬는 경쾌한 색조가 잘 나가며, 어린이용 원피스나 바지 용도로 팔리고 있다.

· **레이온 원단** : 여름철이 되면 레이온 원단의 판매도 성수기가 된다. 수요는 합섬 100%의 실크라이크(silk-like)보다 크고, 또한 실크 제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어린이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 인기가 있는 프린트, 무늬가 없는 염색물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샌드워시(sand-wash)나 구김 가공, 크레이프 가공을 한 신제품이 시장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소프트하면서 매끈한 감촉이 나도록 짠 이 원단은 통기성이 좋고 시장에서 인기도 높다. 여름옷에 가장 적합한 옷감으로서 거래가 활발한 것 같다.

· **프린트 원단** : 프린트 원단은 끈질긴 인기를 갖고 있다. 해바라기나 국

화 등의 꽃무늬를 중심으로 원이나 기하학적 무늬,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 무늬나 동물 캐릭터들을 좋아한다. 프린트에 사용되는 색의 종류도 그 동안의 3~4색에서 5~7색으로 되어 있다. 통기성이 좋고, 아름다운 프린트 무늬 원단은 스카프, 셔츠, 어린이 바지 등으로 가장 싼 원단으로 인기가 있다. 시장에 의하면 가장 잘 팔리는 원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혼방 원단** : 혼방 원단은 시장에서 제일 특색 있는 제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천연 섬유 직물로 분류된다. 통기성이 좋고, 부드러운 색조와 드레이프성, 세탁 수축률이 적은 장점이 있다. 최근 중국 내외의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아마·면 혼방 직물, 아마·비스코스 혼방 직물 등이 시장에서 판매 되고 있는데, 그 동안 판매가 늘고 있어 앞으로도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전기 방지 원단** : 날이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정전기 방지 원단은 안정성, 트렌드성이 요구되는 워크 웨어의 분야에서 정전기 방지 기능을 갖춘 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전기가 방지되는 특수 섬유를 위사로 짜서 도전성(導電性)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석유 화학, 액화 가스, 가솔린 스탠드, 오일 탱크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의 작업복에 사용된다.

색의 종류도 풍부해지고, 유행색도 시장의 니즈에 맞는 상품 구색을 맞추고 있다. 계절마다 최적품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여름용 원단으로서 이들 기능을 갖춘 평직물, 능직물이 잘 팔리고 있다. 이외에 색을 중요시하여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경향이다. ♣